

100세시대, 평생학습 열기 뜨겁다

군산 '문해한마당' 행사 1만5000여명 시민 참가 85개 체험프로그램 등 축제의 장 성황리에 종료

군산시가 평생학습인의 큰 잔치인 '문해한마당'과 '평생학습한마당'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월명체육관과 은파호수공원에서 실시했다. 지난 26일, 월명체육관에서는 약

600여명의 늘푸른학교 문해학습자와 문해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7 군산늘푸른학교 문해한마당'이 개최되어 문해학습자들이 학습한 성과물의 전시와 학습장별 장기자랑을 통해 문해학습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기 부여와 성취욕을 북돋웠다.

27일부터 28일까지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는 약 1만5,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평생교육 행사인 '2017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이 배우는 행복이 시작되는 군산, 평생학습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2017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

은 ▲정리수납, 페이스페인팅, 도자기 공예 등 85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교육생들이 준비한 실력을 뽐내는 경진대회 ▲지역 어르신들 퀴즈대회인 '도전 골든징' 등의 무대행사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생학습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가상현실(VR) 체험, 드론 및 3D 프린터 체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체험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충남 서천군,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4개 도

시의 평생학습관이 행사에 참여해 타 시·군과의 평생학습 교류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되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올해로 군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가 된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기술인재 창의력 눈으로 확인

폴리텍대 익산캠퍼스 프로젝트 작품발표회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최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프로젝트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프로젝트 작품 발표회는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익힌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해 발표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연례행사이다. 이번 프로젝트 작품 전시회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학생들이 해결함으로써 학업 성취감과 창의력을 고취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대회에는 모바일로봇 제어시스템 등 학생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 총 15점이 출품됐다. 그 중 산업설비과



재학생들의 '러브(Love) 조형물'이 대상을 차지했고 전기제어과의 PLC와 터치패널을 이용한 온도제어와 산업설비과의 '공간활용 미니 휴게소'가 금상을 수상했다. 조석남 학장은 "프로젝트 작품 발표회의 출품작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학생들의 높은 학습 성취도와 현장 적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발표회를 마친 후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학교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호평

군산 수송동행복센터, 찾아가는 신규서비스 제공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전종신)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대상자 중 아직 발급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 기한이 경과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송동은 학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부담을 없애고 국가에서 신분을 인정하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에서는 지난 25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관내에 위치한 군산여자상

업고등학교를 방문해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도왔으며, 오는 11월에도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종신 수송동장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생애 첫 신분증을 발급받는 학생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지나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 전북현대, 시민대표 시축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병홍 시장의장이 29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전북현대모터스 '익산시의 날'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축을 해 눈길을 모았다. 익산시와 전북현대모터스는 2018 전국체전과 익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전북현대모터스와 제주유나이티드의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경기에 앞서 '익산시의 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시축 행사에는 500여명의 익산시민들과 수 만 명의 전북현대 팬들이 참가해 2018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북현대 축구단의 K리그 우승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현을 시장은 "전북현대의 K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경기에서 익산시민들을 대표해 시축을 하게 돼 기쁘다"며 "전북도민들의 K리그의 대한 관심처럼 익산에서 주 개최되는 2018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29.)은 주 개최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장양원 기자

'다문화 사랑축제' 익산대표 축제 자리매김

시민 등 400여명 행사 참석 시 '문화적 공존의 장' 마련

여성가족부, 전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가 후원하고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직무대행 김성봉, 이하 익산다가)가 주최·주관한 '제12회 다문화 사랑축제'가 28일 슬리문화예술회관 중공공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익산시민 그리고 지역 다문화가족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익산다가에서 한 해 동안 공부하거나 활동한 다문화가족들이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과 재능을 뽐내는 자리로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익산다가의 대표행사이다. 올해로 12년 연속 개최된 다문화 사랑축제는 익산시립무용단의 축하공연

을 포함하여, 다문화 엄마와 자녀가 함께 꾸미는 동요무대,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연극단의 흥부전 공연, 통합국악 마술단의 마술 공연, 그리고 한국어 교사와 학생, 센터직원들이 함께 꾸민 플래시몹 등 화려하고, 알찬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밝혀주었다. 이번에도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어 캘리그라피전, 패브릭 공예전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황규복 운영위원, 익산시경찰서, (유)노블레스, (유)신흥의 경품 후원으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행사로 구성되었다. 김성봉 센터장 직무대행은 "다인종·다언어·다문화가 함께 어울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며, "이번 행사가 조금이나마 문화적 다양성이 수용되고, 공존되는 장이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수료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이 최근 해양대학 1호관에서 '2017년도 제1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박광수 등 1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제1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료생들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24주간 진행된 교육과정 동안 50시간의 집체교육과 20시간의 워크숍, 32시간의 현장 실습 교육 등 총 102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 기간 동안 수료생들은 도내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강도교육을 전수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 박광수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김성용씨가 전북도지사 표창을, 조호건 씨가 군산대학교총장 표창을 각각 수여받았다. 교육생을 대표한 박광수 학생장은 "24주간의 교육이 매우 뜻깊고 의미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이 최근 해양대학 1호관에서 '2017년도 제1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박광수 등 1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있는 교육 이었고, 수료생들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고, 다른 수산장들도 도내 수산업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펼치기 위한 포부를 각각 밝혔다. 나익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수료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도내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

력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수산과정이 수산업 경영혁신의 새로운 창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군산대학교가 해양수산부 및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교육과정으로, 2010년 개설되어 금년까지 8회에 걸쳐 다양한 과정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수산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재경 군산향우회 여성위, 내고향 살리기 앞장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명자)는 지난 28일 '전라북도경제살리기 군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성태)와 공동주최로 재경 군산시 향우회 여성위원 80여명을 초청하여 군산의 농수산물 체험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고향 방문 행사는 군산수산물 종합센터와 수산물 특화단지 방문, 농촌 베풀기 체험 및 나포버섯농장 견학 등 군산지역 마켓투어를 진행하여 고향의 농수산물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재경군산시 향우회, (사)전북경

제살리기도민회의 군산지역본부,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방문단 구성 MOU를 체결하여 '내고향 상품 애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정명자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농·어업 분야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경 향우회원들이 고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산시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